# 나눔의집, "이사진 부당 해임시 소송 불사"

## 경기도청, 10월 12일 이사진 대상으로 청문회

**이사진, 19개 해임사유 소명**
**경기도, 10월말경 처분 확정**
**사외이사 3명 임명무효 거론**
**해임 확정시 임시 이사 선임**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경기도청이 나눔의집 감사결과 법인 이사 5명에 대한 해임처분을 사전통지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나눔의집 이사들이 청문회에 참석해 사실관계 및 입장을 소명했다. 특히 이사들은 운영미비에 대한 책임을 시인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해임 사유 중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는 해명하며 "운영문제를 초래한 실무진의 사임 등 시정조치가 이미 이뤄졌고 행정미비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에서 해임은 과한 처분으로 여겨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이사진의 소명에도 부당한 해임처분을 확정할 경우, 법적 소송의 가능성도 함께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청(도지사 이재명)은 10월 12일 도청 1층 청문장에서 '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과 관련해 이사진의 입장을 소명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올 9월 나눔의집 5명 이사에 발송한 사전통지서에서 △회계 부정 △인권침해 △법 위반 및 법의 명령위반을 비롯한 19개 사유를 들어 임원 해임명령 및 집무집행 정지를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경기도가 해임처분을 예고한 이사 5명 중 상임이사 성우 스님과 이사 화평 스님이 참석했으며, 우용호 나눔의집 시설 소장이 배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에서 성우·화평 스님은 경기도청이 해임 사유로 제시한 19개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1시간 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청문회는 저녁 8시가 훌쩍 넘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상임이사 성우 스님은 "청문회에서 해임 사유와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운영 실무자들의 행정적 미비사항을 미리 파악해 개선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법과 지침을 세밀히 살펴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며 "다만 이사진은 문제점이 드러난 후 시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진행해 왔고 고의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거나 후원금을 악의적으로 유용, 횡령한 바는 없다는 점에서 해임의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임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나눔의집 이사진이 소명을 위해 경기도청 청문장에 입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경기도청의 해임사유 중 상당수가 편향조사 및 왜곡 논란이 불거졌던 경기도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사회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행했던 시정조치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청문회를 통한 소명절차에서 이사 5명에 대한 해임처분을 최종확정할 경우 나눔의집 사태는 더욱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해임 처분이 확정될 시 나눔의집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개월 내 이사회를 열고 해임을 결의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의결정족수 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나눔의집 법인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는 총 11명. 이 중 5인에 대한 해임 예고와 별개로, 기존 사외이사 3명의 임명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 여부도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이사 5명에 대한 해임과 함께 사외이사 3명에 대한 임명 무효가 확정할 경우, 정작 해임 및 신임이사 선임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는 단 3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 경우 경기도나 광주시가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거나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도청 처분 결과에 따라 이사회가 해임명령 취소 및 효력 정지를 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사회 측은 "해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과 소명에도 경기도가 이사 5인에 대한 해임을 확정할 시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 말 나눔의집 이사회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 가을에 떠나는 기차여행 힐링 '템플스테이' 운영

## 8지역 1박2일 코스로 구성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 이하 문화사업단)이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가을철 템플스테이 기차여행을 선보인다.

이번 기차여행은 각 지역 템플스테이와 인근의 유명 관광지를 연계한 1박 2일 코스로 구성됐다.

코로나19로 언택트 관광이 트렌드로 떠오른 만큼 최대 참가 인원에 제한을 둬 소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전남권에서는 대흥사, 송광사, 증심사 템플스테이, 전북권은 금산사, 내소사, 선운사 템플스테이, 경상권에서는 쌍계사, 직지사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는 총 8개 코스가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기차여행 코스에 따라 낙안읍성, 순천만 습지, 전주 한옥마을, 화개장터 등의 지역 명물을 둘러볼 수 있다.

전남권 코스는 11월까지 상시 운영되며, 전북 및 경상권은 해당 지역 전통시장의 장날이 열리는 일정에 맞춰 운영된다.

이번 코스여행에는 왕복 열차요금과 템플스테이 참가비가 포함됐으며, 참가자들에게는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된다.

예약은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 또는 전화 1544-7755로 하면 된다.

노덕현 기자



관음종은 10월 11일 총본산 낙산묘각사에서 가사불사 점안 및 법계품서식을 봉행했다.

# 관음종, 13년만의 법계품서식 봉행

**10월 11일 낙산 묘각사서**
**법륜 스님 대종사 품수**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이 10월 11일 총본산 낙산묘각사에서 가사불사 점안 및 법계품서식을 봉행했다. 관음종이 가사 봉정과 법계품서를 진행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다. 법주 홍파 스님은 이날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인천 흥륜사 주지 법륜 스님을 비롯해 새롭게 거듭난 76명의 스님들에게 가사를 전하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애초 관음종은 지난 5월 18일 법계위원회를 열고 종단 스님들에 대한 법계고시 등 절차를 통해 법계를 최종확정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품서식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5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태허 조사 탄신 116주년을 기념하며 간소한 형태로 진행된 것.

이날 품서식에서 법주 홍파 스님은 인천 흥륜사 주지 법륜 스님에게 대종사 법계를 품수하고 이를 상징하는 25조 가사와 주장자를 하사했다. 이어 대선사 법계는 창녕 법성사 주지 법명 스님 등 5명이, 종사 법계는 진주 불명사 주지 도각 스님(관음종 총무부장) 등 14명, 법사 품계는 경주 법안사 주지 운오 스님 등 19명, 대덕 품계는 묘각사 템플스테이 팀장 여은 스님 등 23명에게 품서됐다.

이날 법주 홍파 스님은 "가사는 무릇 인욕의 갑옷이므로 이 가사를 수하고 방패로 삼아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 조계종 직영 '불교용품매장' 문 열다

**도반유통, '승소' 매장 개소**
**불상·불화 제작 지원 추진**
**사찰·불자기업 상품 런칭도**

조계종이 직영 불교용품매장을 새롭게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향후 불교용품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상품, 불상·불화 제작 지원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회장 원행) 산하 도반유통은 10월 14일 서울 종로 전법회관 1층 '승소' 매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그간 도반유통은 온라인 쇼핑몰 '승소'를 운영해왔으며, 이번 승소 오프라인 매장 개소로 판매 구조를 다양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 매장에는 김·국수·생수 등 기존 종단 브랜드인 '승소' 상품을 비롯해 염주·불상·차·다구 등 스님과 불자들이 자주 찾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향후 도반유통은 '승소' 매장을 공공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종단 인증 연등·승복·차·향·불구 등을 저렴한 가격에 스님과 사찰에 제공하고, 불교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사찰, 불자 소상공인들과의 런칭을 통해 이들의 제품을 상설 전시할 방침이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 산하 도반유통은 10월 14일 서울 종로 전법회관 1층 '승소' 매장 개소식을 개최했다.

또한 도반HC가 설립한 '연구소 불모'를 통해 전각의 건립과 사찰운영에 필요한 불상 및 탱화 등 불모 상담 및 지원 사업을 병행하며, 천연 수제 침향 등 승가에서 유래한 전통문화 상품들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개소식에는 도반HC 회장 원행스님(총무원장)과 대표이사 지현스님(조계사 주지)을 비롯해 총무원 사업부장 주혜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 등 도반HC 이사 스님 등이 참석했다.

원행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훌륭한 매장을 만들어준 도반HC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서 "많은 사부대중이 앞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스님들과 조계종 신도증을 소지한 불자들은 승소 매장 이용 시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매장 관리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 전액은 승려복지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 개산 1226주년 기념 불교문화축제 개최

## 봉은사, 10월 17일~26일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0월 17일(음력 9월 1일) 개산1226주년을 맞아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불교문화축제 행사를 봉은사 경내에서 봉행한다.

1226주년 개산대재 행사는 10월 17일 역대조사 스님들의 업적을 계승하고 그 뜻을 기리는 헌향, 헌다, 헌화, 권공의식 등의 역대조사 다례재 봉행을 시작으로 봉은사 경내와 주차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사진전시회, 코로나19 위로기금 마련 행복나눔바자회가 진행된다.

10월 19일에는 판전에 소장된 주요 문화재인 화엄경판 인경본을 정대하고 봉은사 전 도량과 법계도를 요잡하는 '정대불사' 의식을 봉행하며, 법보의 공덕과 개산대재의 참된 의미를 기리는 시간을 갖는다.

10월 24일, 25일에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52호 생전예수재 49일기도 회향 의식을 봉행하여 옛 불교수행전통과 명맥을 잇는 한국전통불교문화를 대중들에게 다양하게 선보이고 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10월 26일 미륵대불광장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불자들을 위한 치유의 장을 마련하여 전통과 현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가을음악회를 선보이며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그밖에 봉은사에서는 불교문화축제 기간 중 템플문화한마당, 사찰음식 도시락 나눔행사, 불화, 지화, 다구전시, (사)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서 주최하는 '북한 민족문화유산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봉은사는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불자와 시민들의 휴식과 힐링의 장이 되기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다"며 "산사 속에서 여유를 찾고 잠시나마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3218-4832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조계종 인재양성 지원할 장학위원 위촉

**승가교육진흥위, 10월 14일**
**종호 스님 등 12명에 위촉장**




조계종 승가교육과 인재양성을 지원할 장학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원행)는 10월 1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6기 장학위원 위촉식〈사진〉을 진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동국대 부총장 종호 스님과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조계사 주지 지현, 봉은사 주지 원명, 도선사 주지 도서, 보문사 주지 선조, 선본사 주지 법성, 중앙승가대교수 승원, 동국대 교수 정덕, 진관사 주지 계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 등 12명이다. 6기 장학위원장은 종호 스님이, 간사는 교육원 교육부장 서봉 스님이 임명됐다.

원행 스님은 이날 장학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승가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스님은 "장학위원직 수락에 감사하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힘과 지혜를 모아 후학교육에 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도 "승가교육은 승가의 위상을 높이고 종단 백년대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종단의 미래를 책임질 후학 양성을 위해 원력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학위원장 종호 스님은 "여러 위원 스님들과 힘을 모아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스님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송지희 기자

# 40년 맞은 10·27법난 아픔, 문화로 승화

## 조계종, 27일 당일 천도재 및 특별 전시회

**타종·행사 유튜브 생중계 예정**
**전국 불교대학 신도교육 진행**
**피해자 혜성 스님 시집 발간도**

군사정권이 자행한 불교 탄압사건인 10·27법난 발생 40주년을 맞아 법난의 아픔을 불교가 지닌 정신문화로 승화시키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조계종은 10월 27일 법난 40주년을 추념하기 위해 전국사찰 타종과 천도재, 그리고 법난 기념식 및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먼저 40주년 천도재가 10월 27일 오전 11시 조계사 앞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40주년 천도재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10·27법난 피해자, 신도 등 50명 안팎이 참가할 예정이다.

천도재에 앞서 전국사찰에서는 사시예불을 기해 오전 10시부터 추념타종이 진행된다. 전국 타종은 조계종과 조계사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월 23일부터 사찰 일주문마다 추념 현수막을 게시하여 10·27법난에 대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린다. 조계종은 이날 각종 법회에서 10·27법난을 주제로 법문을 진행하며 전국 불교대학과 협력해 이날부터 신도교육에서 법난에 대해 안내한다.

10월 21일부터 29일까지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와 봉은사 등에서 특별전시회도 열린다. 전시회는 10·27법난 종단의 대응, 국방부 과거사위 및 관련 법률 제정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과 함께 사진과 동영상 등을 통해 당시의 참혹한 모습과 피해 현황을 전한다.

10·27법난 추념식 또한 40주년을 맞아 조금 더 특별하게 열린다. 기념식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10·27법난과 국가권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에 이어 조계종 사회부장 성공 스님의 경과보고와 10·27법난을 추념해 제작한 CI가 소개된다. 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기념사와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 및 피해자 대표 스님의 인사말, 김영주 불사추진위 사무국장의 10·27법난 기념관 건립보고 등도 함께 진행된다. 끝으로 10·27법난의 아픔을 표현한 샌드아트 공연으로 1부는 마무리된다. 2부에서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전시회도 마련된다.

한편, 10·27법난 40주년을 맞아 피해자인 故혜성 스님이 직접 쓴 시집 〈군화에 짓밟힌 법당〉도 출간됐다. 혜성 스님은 1980년 10·27법난 당시 모진 고문과 함께 승려 자격을 잃어야만 했다. 당시 고문과 정신적 충격으로 후유증에 시달리던 스님은 2018년 7월 25일 원적에 들었다. 이번 시집은 혜성 스님의 속가 동생인 이근우 前 청담고 교장이 혜성 스님이 생전 친필로 쓴 시 67편을 엮어 낸 것이다.

노덕현 기자